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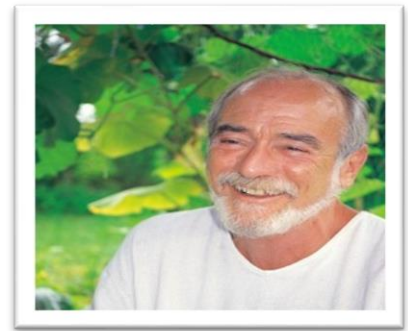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이월선수녀입니다. 작년부터 한국 남녀 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수도자 신학원(Religious Formation Institute)에서 2년 과정의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전반적인 과목을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수도생활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남녀 수도자들이 모여 공부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각 공동체의 다양함을 경험하고 있기에, 사도행전의 초기 공동체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신학을 통해서 주님의 참모습을 다시 익히고, 주님을 닮으려는 야심찬 다짐으로 '지금 여기에서' 천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 당진에 자리한 시골에서 2남4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현재 저의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게 된 계기는,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 모두 서울로 올라와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회 정일우(John Vincent Daly, 1935-2014) 신부님께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사시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저는 외국 사람이 마냥 신기했고, 신부님이 예수님 인줄 알았습니다. 저와 동네 꼬마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부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 지어 따라 다니면서 신부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수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된 것도 정일우 신부님을 뵈러 왔던 수녀님들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수도회에 입회하게 된 사연은, 각 수도회 소개 책자를 읽다가 우리 수도회 모토 중에 '소박' 이 맘에 들어 성소모임을 다니게 되었고, 1994년도에 입회해서 작년에 은경축을 지냈습니다. '소박은 즉시 행동하게 하며, 노력을 바르게 하고 사심을 버리게 한다.' 라는 회헌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교구 용안 본당을 첫 사도직으로 시작하여 본당 3곳, 영성생활 회계, 한국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The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of Women Religious in Korea) 경리, 관구 회계 등 수도생활 삼분의 일이 숫자와 관련이 깊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사도직은 한국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도직 3년 동안 선망하던 수녀님들을 많이 만난 것입니다. 특별히 평회원 수녀가 참석하기 어

려운 AMOR과 UISG를 주최하면서, 전 세계 장상수녀님들의 막강한 힘을 느꼈는데, 바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가시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쁜 사도직에서 벗어나 신학 공부를 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감사의 나날입니다. 저의 생애와 수도 여정을 되돌아볼수록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일우 신부님을 통해서 저에게 오신 주님을 감히 '나의 구세주' 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재촉하나이다!" 라는 기도와 함께 목걸이에 친구 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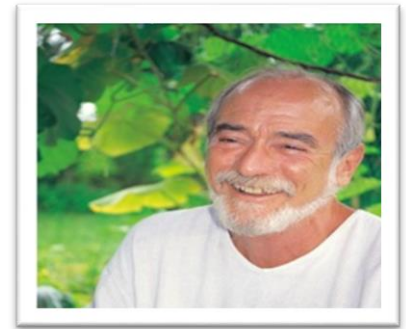


Hello! I'm Sister Lee, Wol Son. Since last year, I have been studying theology for two years at the Religious Formation Institute hosted by the Korean Men's and Women's Religious Superiors' Association. I am on a journey that is taking root in my religious life 'through Christ, with Christ, and in Christ' while learning the overall subject of theology.



Men and women religious gather together, to study theology and also share their lives and experiences of the diversity of each community with one another. This is reminiscent of the early community which is depicted in Acts. Through studying theology, I am getting to know the Lord more deeply and trying to live a heavenly life "here and now" with ambitious commitment to imitate the Lord.

I was born as the youngest of two boys and four girls in the countryside in Dangjin, Chungnam. My parents are in heaven now. My father passed away when I was three, and my mother passed away 15 years ago. After the death of my father, my family moved to Seoul. In my second year of elementary school, Fr. Jeong Il-woo (John Vincent Daly, 1935-2014, Jesuit Priest) came into our village and started living with the residents. I was baptized through his influence. At that time I didn't know Jesus, all of the children in the village were curious about him as a foreigner (Fr. John), and I thought he was Jesus. He loved the children in his neighborhood and we followed him and flocked to wherever he went.



The dream of becoming a religious began when I saw the sisters who came to see Father Jeong Il-woo. While reading the introductory book of all religious congregations, I came across the section of our community and the motto "Simplicity" touched my heart. After that I began to participate in the meetings for vocations, entered in 1994 and celebrated by silver jubilee last year. I am striving to live out the words "Simplicity acts promptly and keeps the effort straightforward and self-forgetting." of *The Constitutions*.

Beginning my first ministry in the Yong-an parish of Jeon-ju Diocese, I was later missioned to three parishes, as treasurer of the Spiritual Life Publication office, accountant for the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of Women Religious in Korea, and as provincial treasurer. The most unforgettable time was the three years at the Korea Women's Association. In particular, while hosting AMOR and UISG, which ordinary members of religious congregations usually find difficult to attend, I could have the privilege of meeting numerous prominent sisters and feel their collective power as religious leaders from across the world. I am sure that the power originated from their living in the grace of God.



Now I am so grateful that I am away from the busy ministry and can spend time on studying theology with leisure. The more I look back on my life and religious journey, the more I can't turn away from God's great love. I dare to confess that the Lord who came to me through Fr. Jeong Il-woo is my savior. Every morning, I kiss our emblem saying "The Love of Christ urges us!" and place my day in the Lord with trust.